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AI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구제역·AI 가축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가축 매몰지 관리지침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선에서 관리지침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분산되어 있던 지침을 통합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 「3년경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가축 매몰지 발굴허가 지침」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으로 통합

금번 개정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은 가축 매몰지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굴금지·관리기간 연장 매몰지 선정 기준 강화

- 기존의 선정기준인 가축 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 이외에도 침출수·토양의 병원체(바이러스) 검사 및 가축사체 분해 확인 결과를 선정 기준에 추가

매몰지를 발굴, 건축 등 다른 용도 활용 시 관리 강화

- 발굴금지기간이 종료된 매몰지를 발굴하여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 시, 토지소유자가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사체 잔존물 적정처리 여부를 현장 확인

연장 관리기간(2년)이 종료된 매몰지 관리 강화

- 연장 관리기간이 종료된 매몰지 중, 관측정 수

질검사 결과 환경영향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고시하여 관측정 추가 설치 및 수질측정 강화(반기별→분기별)

- 관측정이 없는 매몰지는 매몰지를 발굴하여 사체 잔존물을 소각 등으로 처리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친환경 처리 매몰지 철거 시 조치사항 구체화

- 액비저장조,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조 및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 매몰지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성된 매몰지를 철거 할 때 침출수 및 사체 잔존물 등의 처리 절차를 명시

- 사체 잔존물 및 왕겨 등 통기성 재료는 소각처리

- 침출수는 병원체(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pH 5.0이하 또는 pH 10.0 이상으로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으로 이송 후 처리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가축 사체의 처리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감염 가축을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기준」, 「사체의 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농식품부 고시)」 등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

난 8월 26일에 개최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는 예산군수 등 지자체,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농업인단체, 응봉가스 등 업계로부터 총 15건의 건의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과제는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진출입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기간(3년) 연장, 광명와인동굴 같이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다양한 전통주 유통방안 마련,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15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부내 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10월 중에 개최하는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개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규제개혁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14/'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결과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 9. 2. '14/'15년 국내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H5N8))와 관련하여 역학조사위원회 AI 분과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재홍 교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위원회(AI분과위):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방역 관련 기관, 철새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로 총 32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역학조사위원회는 국내 HPAI(H5N8)발생에 따라 '14.1월 이후 전체 회의 및 현장방문을 총 14회를 실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 '14년 8월 7일 역학조사위원회 개최 시 1차 발생('14.1.16. ~7.29) 상황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실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 '14년 1월 최초 발생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철새에 의해 국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H5N8 바이러스는 과거 국내에서 검출된 바가 없고, 철새의 폐사체 및 분변 등에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검출되었고, 철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가금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해외 방문 및 수입축산물 유입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14년 9월 이후 AI가 재발생된 원인은 기존 발생농가의 잔존물에 남아있던 AI 바이러스와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새로 국내에 도래한 철새를 통해 유입된 AI 바이러스에 의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4년 9월 이후 전남지역의 전통시장 가금 중개상이 보유한 계류장 등에 잔존하던 바이러스로 인해 재발생하여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기, 전남, 부산 등 지역의 일부 발생은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철새에 의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14년 하반기 월동을 위해 도래한 철새에서 검출된 HPAI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임

** 경기 안성·여주, 전남 구례·나주, 부산 등

아울러, AI 바이러스는 과거 발생사례와 유사하게 차량, 축주 및 종사자, 야생조류, 인근전파, 가금 증개상인, 가금 이동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타 가금 사육농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전파경로별 건수 및 비율(추정) : 차량 112건(29.9%), 축주 및 종사자 93건(24.9%), 야생조류 67건(17.9%), 인근전파 56건(15%), 가금 증개상인 18건(4.8%), 가축이동 17건(4.5%), 계열사 관리 6건(1.6%), 남은음식물 공급 5건(1.3%)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15년 6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 AI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발생농가 등의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동안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이동통제, 살처분 및 소독조치 등 차단방역조치로 AI 바이러스가 잔존가능성이 낮으며, AI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상시예찰 검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올해 미국, 대만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AI 발생상황과 철새 유입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에도 철새를 통해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체단체, 가금 사육농가 등은 아래사항 등의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축사내 그물망, 출입문 및 창문 개폐시설 등 차단시설 설치 및 정비 철저
- 사료 등이 없도록 축사 주변을 청결히 하는 등 야생조류가 접촉 환경을 사전에 제거

-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
- 농장 출입장소와 더불어 축사별로 소독조 및 전용장화 구비, 활용 철저
- 기존 발생농가에 대해 재입식 관리 철저 및 잔존물에 대한 소독 등 사후관리 강화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취약 축산시설은 주기적 소독 실시
- 철새 도래시기 등에 맞추어 AI 바이러스 예찰 강화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 포장제 표시사항 중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식육가공품의 고기함량(육함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기준규격)'에 따라 제품 유형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육가공품의 대표적 식품인 햄은 햄·생햄·프레스햄·혼합프레스햄으로 나뉘며 각각의 육함량은 다음과 같다.

- 햄과 생햄은 기준규격에 별도의 육함량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식육이 9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고깃덩어리를 그대로 가공하거나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제조·가공한다.
- 프레스햄은 제조 시 식육이 85% 이상, 전분은

5% 이하로 사용되며, 고기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만든다.

- 혼합프레스햄은 제조 시 식육이 75% 이상, 전분은 8%이하로 사용되며, 고기에 어육 등을 혼합하여 가공한다.

또한 소시지는 제조·가공 시 식육은 70% 이상, 전분은 10%이하로 사용되며, 식육을 잘게 갈아 다른 식품을 첨가한 후 훈연·가열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다.

현재 식육가공품에 사용된 육함량은 제품 유형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품별 표시는 생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제품명에 '치킨', '돼지고기' 등 특정 원재료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법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 CODEX(국제식품규격) 등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육함량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앞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육함량 표시의 방법, 기준, 해외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여 보다 개선된 표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햄·소시지의 유형별 고기 함량

분류	햄류				소시지류		
	햄	생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	발효 소시지	혼합 소시지
고기 함량	90% 이상	90% 이상	85% 이상 (전분 5% 이하)	75% 이상 (전분 8% 이하)	70% 이상 (전분 10% 이하)		

※ 단, 고기함량은 원료배합 시 기준을 말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첨가되는 배합수는 제외하고 계산

농촌진흥청

축산 부문 기후 변화 대응 전략 학술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해 축산 부문의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9월 2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열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 태풍, 장마 등 기상이변과 자연 재해 발생이 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약과 정책도 급변하고 있어 우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기술·연구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정책 부서와 연구기관, 대학 등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축산 부문 기후변화 정책(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박원태 과장),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개발 연구 전략(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나영은 팀장), 축산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1) 구축 연구(아주대학교 이건모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또,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관리 동향(한국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박사), 반추동물 장내 발효 메탄 저감 연구(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오영균 연구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재환 영양생리팀장은 “축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기술의 고도화는 우리 축산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부문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 ‘반추동물의 온실가스 발생량 측정과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반추동물의 메탄 저감 기술 개발’, ‘축산 부문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평가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 방역·축산 현장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이 방역 강화와 현장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가축질병방역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전염병으로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지난 6월 신설했으며, 수의연구직 7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생명환경부(완주), 축산자원개발부(천안), 가축유전자원센터(남원), 한

우연구소(평창), 난지축산연구소(제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유전자원(생축, 동결정액, 수정란 등)과 실험 가축의 질병 관리와 방역을 총괄한다.

※ 국립축산과학원 보유 가축 : 소, 돼지 등 우제류 약 4,000마리, 닭 약 3,800마리 등

5개 청사별·축종별 맞춤형 차단 방역 상황을 자체 진단해 내·외부 가축 질병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축사육단지별로 가축 질병예방 현장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보유 가축의 질병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마다 축종별, 지역별 현황에 따른 맞춤형 가축 질병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설계, 적용하며 질병 예방·극복 연구를 강화한다.

축산 농가를 위한 현장 지원도 실시한다. 9월 16일부터 11월까지 산업동물 진료 취약 지역의 축산 농가를 찾아가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 교육, 전문 진단 장비를 활용한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한다.

충남 서천(9월 16일, 18일), 경남 하동(10월 2일), 강원 태백,정선(10월 13일~14일), 강원 고성,양구(10월 21일~22일), 경기 포천(10월 27일), 충북 진천(10월 29일), 강원 양양(11월 3일) 5개도 9개 시·군에서 10회 진행한다.

3명~4명 전문팀을 꾸려 지역별로 가축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질병 상담과 농가 현장을 찾아가 질병 진단(상담)도 실시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뿐 아니라 사육 환경 전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아픈 가축은 혈액, 분변 등 시료를 채취해 원인을 분석, 제공한다. 현장 지원을 받은 농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 가축방역기관 등과 질병 진단 결과를 공유해 질병 발생 상황을 빠르게 예측하고 대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가축질병방

역팀장은 “내부에서 보유한 유전자원과 시험축의 안전관리는 물론, 농가 현장의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해썬(HACCP) 홍보 총력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해썬인증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 참가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축산물HACCP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가해 귀농·귀촌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도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해썬인증원은 미래창조과학부내 축산물HACCP 홍보관을 설치하고 LOD기반 축산물안전먹거리 국가DB 구축사업 소개와 축산물 안전·안심먹거리의 선택기준인 HACCP관련 정보 안내 및 현장 교육 등 여러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현장 교육에 이어 해썬(HACCP)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HACCP 인지도 조사를 질문형 스티커방식으로 조사하고 기념품 제공을 병행해 관람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해썬인증원에 의하면 3일간의 박람회 기간 내에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축산물해썬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해썬인증원의 홍보 관계자는 “소비자 및 HACCP 인증대상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밀착형 홍보인 박람회 참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썬인증원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과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도 각각 참가해 현장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자재·급식·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물관리 실무’ 과정 신설,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박해열)은 오는 10월 1일(목)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식자재·급식·외식업체를 위한 이물관리 실무’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식자재·급식·외식업체를 위한 이물관리 실무’ 과정은 그간 운영하고 있는 ‘식품이물관리 실무’ 과정이 식품제조·가공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물관리 방안에 치우쳐 있어 급식·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이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신설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식자재업체를 비롯한 급식, 외식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물관련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이물관리 전반에 걸친 지식은 물론 구체적인 대처방안까지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과정

이다.

본 교육은 식자재, 급식, 외식업체 현장에서 이물클레임 예방활동과 이물관리 계획 및 수립방법을 완벽히 익혀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이물관리정부정책 방향과 최신이물사고 발생사례, 급식에서의 이물 혼입경로, 이물클레임 예방활동 및 급식조직의 운영, 급식 이물관리 계획의 특성 요인도 실습과 이물혼입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의 주요교육대상은 외식·급식·식자재업체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1일 과정으로 8시간 동안 행해지며,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1만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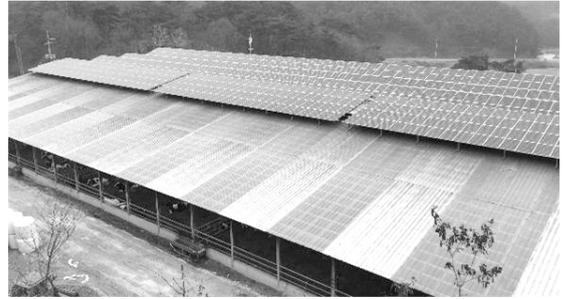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교육운영부(031-400-3527)로 하면 된다.

농협중앙회

축사지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확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이기수)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허식)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14일부터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은 태양광발전사업자 본인 소유의 태양광발전시설 및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최장 12년까지 지원되며 이는 지금까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다수의 양축농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다. 축사는 통상 넓은 지붕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거의 없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비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태양광발전시장에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본 사업의 중장기적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최근 연이은 축산 강국과의 FTA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 농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농협 상호금융과 협력을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본 사업의 의미를 밝혔다.